

## 사립대학의 발전과 역할에 대한 의견



백낙환  
인제학원 이사장

우리나라 고등교육, 특히 대학 이상의 교육은 사학 의존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상당수 사립대학의 재단과 경영진이 교수나 학생들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몇몇 대학은 수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표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설립자가 대학에 대한 개인적 소유권을 의식하고 대학 운영, 특히 인사 문제를 공명정대하고 투명성 있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이 바르게 발전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운영 주체인 재단이 바로 서야 한다.

사립대학교의 운영 형태에 있어서는 미국의 하버드대, 스탠포드대 등 최고 명문 사립대학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사립대의 운영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학의 설립자 또는 재정지원자가 운영에 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써 대학을 완전한 사회의 공기(公器)로 만든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학은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그 교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경영 책임자는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인제대학교의 경우는 지난해 본인이 이사장에 취임한 후 재단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익성을 증대시키기로 원칙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칙 하에 우선 재단 임원진을 개편하여 덕망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였으며,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공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재단 임원의 구성과 공명한 인사 처리가 우리 재단의 성격과 미래를 결정하는 기본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학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교육 내용도 중요하다. 대학은 전공 교육도 중요하지만 예절 교육을 포함한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전산, 영어, 한자 등의 실무 교육과 함께 환경 및 통일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산업화를 추진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적 성향이 점차 강해지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 저변에는 오만과 업신여김, 반목과 갈등, 원한과 증오가 숨어 있는 것이다.

“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사랑, 정, 의리가 어우러진 따뜻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 대한 인성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특히 교수가 사랑과 정으로써 학생들을 대해야 하고, 개인지도를 활발히 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사랑, 정, 의리가 어우러진 따뜻한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에 대한 인성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대학에서는 특히 교수가 사랑과 정으로써 학생들을 대해야 하고, 개인지도를 활발히 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999년에 인제대학교에서 인제인성대상(仁濟人性大賞)을 제정하게 된 취지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인성 교육을 염두에 두고 평생을 다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오신 분들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사표(師表)로 삼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였다. 그동안 연세대학교 철학교수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큰 기여를 해 오신 김형석 교수, 법조인으로 인권을 위해 평생을 바쳐 오신 전 감사원장 한승헌 변호사, 천주교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로 손꼽히는 김수환 추기경과 같은 분들에게 상이 돌아감으로써 그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대학의 역할 중 힘써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또 다른 주제로 '통일'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 민족의 장래가 밝을 수는 없다. 더구나 2000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고 공동성명까지 발표하였다. 이제는 남북 모두 국력의 소모를 불러오는 대립 관계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 교류 촉진을 통해 통일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일수록 남북한간 이질감이 커지고 있고, 통일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단의 세대가 살아 있을 때 통일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우리나라 주인공들인 젊은이들에게는 통일의 당위성을 일깨워 주고, 북한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일의 기대 효과를 가르쳐 이들이 자연스럽게 통일의 대열에 동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천이 문제이다. 환경 교육은 강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행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인제대학교는 경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환경 캠페인에 맞게 낙동강을 우리의 활동 무대로 삼고 낙동강 주변 정화 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대학에서는 단지 이론만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도 배워 나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백낙환**

#### 백낙환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재단법인 백병원장, 백중앙의료원 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외과학회장, 대한병원경영학회장, 인제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으로 인제대학교 명예총장, 인제외과대학 일반외과 주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외길 70년』이 있다.